

예비경선→본경선→결선투표→단일화 민주 대권행 티켓 잡기 '첩첩산중'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정

연번	지역	선거인단 모집기간	모바일 투표일	투표소 투표	순회 투표
1	제주	8.14(화)	8.23(목)~24(금)	8.25(토)	8.25(토)
2	울산		8.24(금)~25(토)	8.25(토)	8.26(일)
3	강원	8.17(금)	8.26(일)~27(월)	8.27(월)	8.28(화)
4	충북		8.28(화)~29(수)	8.29(수)	8.30(목)
5	전북	8.21(화)	8.30(목)~31(금)	8.31(금)	9.1(토)
6	인천		8.31(금)~9.1(토)	9.1(토)	9.2(일)
7	경남		9.2(일)~3(월)	9.3(월)	9.4(화)
8	광주·전남	8.24(금)	9.4(화)~5(수)	9.5(수)	9.6(목)
9	부산		9.6(목)~7(금)	9.7(금)	9.8(토)
10	세종·대전·충남		9.7(금)~8(토)	9.8(토)	9.9(일)
11	대구·경북	9.1(토)	9.10(월)~11(화)	9.11(화)	9.12(수)
12	경기	9.4(화)	9.12(수)~14(금)	9.14(금)	9.15(토)
13	서울		9.13(목)~15(토)	9.15(토)	9.16(일)

29일부터 시작 ... 대선 직전까지 험난한 여정

민주당이 18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물결을 확장한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대권행 티켓'을 잡기 위해선 최소 4차례의 당 내의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험난한 길을 헤쳐가야 할 전망이다.

당내에서 2~3번의 경선을 거쳐야 하고 당 후보로 확정된다고 해도 안철수 원장과 통합진보당 후보 등과의 후보 단일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내의 첫 관문은 예비경선이다. 민주당은 29~30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7명의 대선주자 가운데 5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에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이원 절반씩 포함된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5대 5 비율로 반영된다. 각 여론조사의 샘플은 2400명이다.

예비경선을 통과하면 두번째 관문인 본경선이 기다린다. 본선은 8월25일부터 9월16일까지 23일 동안 열린다. 투표소 투표, 현장 투표,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지역별 순회경선을 하기

전날 각 지역에서 사전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표소 투표를 실시하고, 지역별 순회 경선 당일에는 후보자 연설을 마친 뒤 대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를 한다. 지역별 순회 경선은 2007년 경선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은 제주에서 시작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일부 후보자들의 반발을 샀던 모바일 투표·개표 방식과 관련, 기획단은 지역별 순회경선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소로 둔 시민의 모바일 투표 결과도 현장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본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2위 후보와의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결선투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결선투표 방식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소 투표, 현장 투표, 모바일 투표와 인터넷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소 투표는 22일에 실시하고,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대의원, 권리당원과 사전 신청자다. 현장 투표는 23일에 서울·경기·인천지역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투표와 인터넷 투표 기간은 18~22일 기간 안에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해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야권후보 단일화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도 9월까지 당내 대선후보 선출 절차를 완료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의 경선 승리가 어렵지만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후보들에게는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칼날 앞에 선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계단에서 열린 '공작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혼합

민주 경선을 확정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된다.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은 오는 9월6일 실시되며 전국 13개 지역 가운데 8번째로 경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선 판도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당 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물결을 최종 확정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며, 선거인단 등록은 내달 8일부터 9월 4일까지 28일간 진행된다.

전국 순회 경선은 다음달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23일간 치러진다. 제주(8.25) 울산(8.26) 강원(8.28) 충북(8.30) 전북(9.1) 인천(9.2) 경남(9.

4) 광주·전남(9.6) 부산(9.8) 세종·대전·충남(9.9) 대구·경북(9.12) 경기(9.15) 서울(9.16) 순으로 실시된다.

1, 2위 후보 간의 결선투표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치러지며 ▲모바일투표(9.18~22) ▲인터넷투표(9.20~22) ▲시군구 투표소 투표(9.22) 결과와 후보 선출대회일인 9월 23일 현장투표(서울·경기·인천 대의원)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후보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30일 5명의 본선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당원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예비경선 투표권과 관련해 1인2표제 도입 요구가 있었으나 표결 끝에 1인1표제가 통과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저축은행 1억 수수혐의 소환방침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야당탄압" 반발

민주당은 18일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방침에 대해 "근거 없는 야당 탄압",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자금 수사 촉구 및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종걸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공동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치검찰이 19일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검찰은 더 이상 편파적인 수사와 야당 옥죄이 기, 야당 재갈 물리기, 의혹수사를

절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선자금 수사 촉구 및 정치검찰공작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무소불위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수사해야 할 분야를 정확히 수사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를 명백하게 납득할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거듭 밝히지만 솔로몬이나 보헤지 저축은행이나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

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를 엄호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이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행보와는 사뭇 대비되는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정 의원이 지난 3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태도에 따라 박지원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한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제2의 정두언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종걸기자 golee@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거의 도배를 하셨군

전국 최고의

제4회 영광 갯벌축제

승귀는 갯벌, 아름다운 추억!

2012.7.21(토)~7.29(일) 9일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해수욕장
갯벌걷기대회/개매기/조개잡이/후리그물/갯벌보물찾기/맨손장어잡이/기마전 등

제4회 영광갯벌축제 홈페이지 <http://mudrun.net> 각종 갯벌체험 및 야영장 인터넷 접수 문의전화: 영광갯벌축제추진위원회 061)353-8005